

## «유라시아 친선특급»이 우수리스크에 오다

2차세계대전 종전 7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에서 베를린까지 횡단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이 출발했다. 200여명의 참가자들이 7월 14일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고, 다음날 주블라디보스톡 한국총영사관 이석배 총영사와 «유라시아 친선특급» 김창범 단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우수리스크를 찾았다. 대표단에는 대한민국 국립무용단의 대표들과 «세종» 재단 이사장,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과 예술가들이 포함되었다.

우리 도시에서 한국에서 온 손님들은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적 현장들을 방문했다. 그 후 «평화사절단»들은 고려인문화센터에서 우수리스크시 시장 니콜라이 루디의 환영을 받았다. 그는 우수리스크가 다른 러시아의 여러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다민족 도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수리스크에서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민족은 고려인이다. 니콜라이 니콜라이 에비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수리스크 시민들은 여명의 나라의 문화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고려인문화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의 설날과 추석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

유라시아 친선특급»이라는 이러한 큰 규모의 국제행사가 우리의 도시를 통과한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중 앞에 나선 «유라시아 친선특급» 김창범 대표단은 2015년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한국의 광복 70주년임과 동시에 러시아와 한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20주년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행사의 목적은 유라시아를 평화, 창조 그리고 공동번영의 현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대표단을 맞이한 연해주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회장 니콜라이 김은 고려인문화센터를 방문한 모든 손님들에게 우정을 표시하고, «유라시아 친선특급»의 과제가 실현되기를



기원하면서 준비된 콘서트를 잘 즐겨달라고 부탁했다.

우수리스크의 젊은 예술가들이 출연한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그들은 흥미진진한 한국 북 음악을 연주했고, 춤 가락에 맞추어 한국 노래를 불렀다. 외부에서

온 예술가들은 청중들에게 한국의 전통 음악과 노래를 들려주었다. 연주자들이

입은 전통의상은 아름다운 색채로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돋구어주었다.



### 고려신문

한글판의 편집인: 김 발레리아  
번역과 감수: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김중헌, 윤상원  
기자과 디자인: 김 이리나

# 크림의 고려인 디아스포라

러시아인이 되다 이 주제에 관해 몇 년 전 «고려신문»에 이미 쓴 적이 있다. 흑해에 이미 호머가 언급한 바 있는 아름답고 장엄한 반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산

함대들을 위한 가장 적합한 항구인 영웅 세바스토폴, 지난 세기의 수많은 궁전들, 고대의 유적들, 이것들을 보러 오는 매년 수백만에 이르는 관광객들, 풍부한 동물군 - 이

나인, 크림 타타르인, 벨로루시인, 아르메니아인, 아제르바이잔인, 우즈베크인, 몰다비아인, 유태인, 그리스인, 폴란드인, 불가리아인, 터키인, 독일인, 카라이트인, 크림인 그리고 4천명 이상의 고려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 기사에서 우리는 독자들에게 크림반도의 우리 동포들을 소개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계기가 출현했다. 알려진 대로 이미 16개월 전에 크림은 다시 러시아가 되었다. 2014년 3월 16일 반도의 지위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여기에서 96% 이상의 유권자들이 러시아와 통합하는데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자치공화국 의회는 독립을 선언하고 모스크바에 공화국을 연방의 새로운 주체로서 러시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제안하였다. 3

월 17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림공화국이 독립된 주권국가임을 승인하고 세바스토폴의 지위를 승인하는 명령서에 서명하였다. 3월 18일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크림공화국과 세바스토폴시가 러시아의 일원으로 편입된다는 조약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운명적인 역사적 국민투표에서 대부분의 크림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모든 고려인들 역시 오랫동안 기다려온 고려사람의 조국 러시아로의 재통합에 찬성표를 던졌다. 주민들의 의지 표명의 결과를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고려

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에 대해 나는 크림 고려인협회 «고려»의 상임의장 B.A. 김에게 질

비에트 집행위원회 책임자로 일했다. 최근 몇 년간은 크림의 도시들과 지방들에서 공인된 주권을



과 숲의 매혹적인 풍광, 모든 것들이 크림의 사풍요로운 스텝, 은혜로운 휴양지가 있는 남쪽 해안, 만, 바다로 향하는 창인 도시들 중 가장 큰 도시이면서 세계에서 해군

모든 것들이 크림의 사람들이 큰 자부심을 갖는 이유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175개 민족들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고 있다. 러시아인, 우크라이

나인, 크림 타타르인, 벨로루시인, 아르메니아인, 아제르바이잔인, 우즈베크인, 몰다비아인, 유태인, 그리스인, 폴란드인, 불가리아인, 터키인, 독일인, 카라이트인, 크림인 그리고 4천명 이상의 고려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운명적인 역사적 국민투표에서 대부분의 크림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모든 고려인들 역시 오랫동안 기다려온 고려사람의 조국 러시아로의 재통합에 찬성표를 던졌다. 주민들의 의지 표명의 결과를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다.

문하였다. 그는 푸른제 명 심페로폴국립대학교에서 고등경제교육을 받고, 대학 졸업 후 심페로폴시 주식회사 «링-빅»과 «아펙스 크림»의 과장으로 일했으며, 회사 «벨라»와 개인사업체 «티아레-씨»의 지배인을 역임했고, 그 후에는 심페로폴시에서 키예프지방소

인정받은 심페로폴 지방 정부의 수석 부의장 직을 맡아서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여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다. 그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하고 결합시켜 그들을 효과적인 사업에 동원할 수 있었다.

다음 4 페이지

## 러시아 정부가 극동의 투자자들에게 보조금을 줄 것을 심의하고 있다

연해주 수석부지사 바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무료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심의하는 러시아연방 정부의 회의에 참가했다. 6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실현되도록 할 보조금의 총액은 1,380만 루블이 승인될 계획이다. 이 금액 중 올해에는 270만 루블이 제공될 것이다.

러시아연방 당국은 극동의 발전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자리 매김했다. 극동과 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다. 2015년부터 투자자들에

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무료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심의하는 러시아연방 정부의 회의에 참가했다. 여러 계획들이 실행되었는데, 특히 블라디보스톡은 거주비용을 경감해주는 정책과 함께 자유무역항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최근에 법안은 연방 소비에트의 승인을 받았다.

우리는 블라디보스톡에 관세를 경감하는 자유무역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제안이 2014년 12월 연방의회에서 행



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연설에서 이미 천명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자유무역항에서는 기업가와 투자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정책이 실행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국가두마의 위원들은 7월 3일 제출된 자유무역항에 관한 법률안을 제3 심의회에서 압도적으로 채택하였다. 법안 심사의 결과에 따라 몇 개의 개정이 있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실행은 이제 연해주의 15개 지

방자치단체로 확장된다. 또한 새로운 법안에는 거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규정되었으며, 자유무역항 유무역지구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들이 만들어졌다.

연해주지사 블라디미르 미클루세프스키의 견해에 따르면, 연해주에 자유무역항을 설립하는 법안은 유연하고 쉽게 통과될 것이고, 그것 자체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춰줄 것이다. «법안은 많은 수의 전

문가들, 사업가들의 참여로 만들어졌는데, 법률안의 종합토론에는 750명이 참가했다. 나는 동방개발부의 동지들께 감사를 드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한편으로는 창조적으로 접근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그토록 광범위하게 심사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위 «아시아의 호랑이들»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의 좋은 실례를 이용하려고 노력했다. 때문에 신중한 낙관론으로 나는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주지사는 강조했다.

# «고려신문» - 고려사람의 얼굴

존경하는 편집장님, 오스트레일리아의 독자입니다.

한국 밖에서 한국 문화를 보존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고려신문»은 모든 한인들에게 큰 애국자들인 언론인들이 해야 할 꼼꼼한 작업의 명료한 실례입니다. 매번 호의 신문에는 여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흥미로운 삶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문

알려주고자 했으나 매우 어려웠던 한민족의 풍습과 전통을 알게 되어 흥미로워합니다.

여러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의 역사를 읽고 매우 흥미로워합니다.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비교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의 역사적 조국과 자신의 민족에 대해 새로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줄 내용이 실리게 될 다음 호를 초조하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신문에는 촉탁기자이면서 저의 지인인 베테랑 언론인 볼코프의 노력 덕분에



화, 풍습이 모든 것들은 역사적 조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후대 세대들로서는 보존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편집장님과 귀하의 활동 덕분에 이러한 작업은 훨씬 쉬워졌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조부모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으로 제가 포함되어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한인들에 대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 신문의 기사가 단지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로도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매우 유용한 일입니다! 많은 청년들로 하



여금 우리 선조들의 언어를 배우도록 자극합니다. 신문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알고 싶어하도록 합니다.

귀 신문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제 친구들도 기꺼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기사 속에서 여러 다양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려신문»은 이미 고려사람 자신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신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소망도 있습니다. «고려신문»에는 훌륭한 스폰서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이상 발행되도록 발행주기를 늘려주실 수는 없는지요.

제 자신에 대해 몇 마디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미 저에 대해서 쓰신 바와 같이 저는 텔레비전과 극장의 드라마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 지방의 어린이 극장에서 몇 년 전 «도모제도보» 공항의 폭발사건에서 비극적으로 숨진 재능있는 현대 드라마작가 안나 야브론스카의 새로운 희곡 «뱃사공»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뱃사공»은 성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누군가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신화를 떠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하데스의 헤라클레스와 시지프스 이야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작품은 빛과 어둠, 영원과 불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기 파괴의 길로 갈 것인가,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울 것인가를 선택하는 이

야기입니다. 저는 주인공 중 한 명을 연기합니다. 9월 말에 초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린이 탤런트학교 «영감»의 감독이기도 한 우리 극장의 감독 엘레나 빅토로브나 미하일로바가 자신의 젊은 학생들과 함께 프라하에서 열리는 어린이 댄스그룹의 국제 축제에 참가하러 갔습니다. 그녀

는 나에게도 함께 가고 하였습니다. 물론 나는 즉시 동의했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영감»은 축제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상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내는 사진은 우리가 프라하 공항에서 찍은 것입니다.

포트르 볼코프



## 크림의 고려인 디아스포라

그 결과 «고려»는 협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실제로 가장 훌륭한 협회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러시아로 편입된 새로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역시 스스로를 보여줄 수 다. 지금 우리는 조직 과정에 있다. 크림공화국 도시들과 지역들에서 «고려»의 주요 지부들 대신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를 설립하고 있다. 잔코와 심페로폴에서는 이미 창립회의가 실시되었고 사법기관에 각각 등록을 할 것이다. 잔코에서는 유명한 사업가인 드미트리 장이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를 이끌고 있고, 심페로폴에서는 자신들의 지도자로 젊지만 이미 훌륭한 조직가로 판명된 크림 경제경영 대학의 학생인 알렉세이 김을 선출하였다. 가까운 장래에 창립회의



폴스크지역, 소베트스크지역.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는 얘기했다. «우리 크림고려인협회 «고려»는 우크라이나 고려인

할 계획이다. 우리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 크림과 두 한국 정부 사이에 경제적, 상업적, 문화적 그리고 학술적 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과 크림에서 여러 인종들 사이의 협력의 강화를 촉진시키는 것.»

«3월에 크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다른 많은 지역들은 크림반도의 주민들이 공화국을 우크라이나에서 빼어내어 러시아로 통합시키는 의사를 표시한 국민투표일 1주년을 널리 기념했다. 여러 곳에서 큰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기념일은 진정 전체 주민들의 행사가 되었다. 우리 크림의 동포들은 이 행사에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물론 이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도

통의 봉쇄, 전기와 물의 공급 차단 등의 여러 가지 음모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낙관적이고 근면하며 자신감이 넘치는 크림 사람들은 러시아가 곧바로 새로 연방에 편입된 지역에도 움의 손길을 주는 것보다 더욱 노력하고 있다.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결정되어 막대한 양의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케르첸 교량의 건설 계획이 준비되었다.»

심지어 당 지도자 재통합 이후 크림반도의 정치적 삶도 실제로 변화되었다. 러시아 정당의 지역 지부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는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획득한 «러시아 애국자당»도 있다. 그런데 이 당의 크림지역 지부의 지도자로 1년 반 전에 블라디미르 김이 선출되었다. 이렇듯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지도자가 이제는 심지어 당의 지도자가 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 일도 김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각기 다른 연령대와 직업, 사회적 그룹을 대표하는 약 3천명에 이르는 당원들이 가입한 20여개의 지방 지부가 이미 결성되었다. «러시아 애국자당»의 과제가 무엇이냐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관

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블라디미르 김은 말했다. «러시아 전체에서 우리 당원 수는 이미 8만명이 넘었다. 당의 모토는 «애국심, 정의, 민족주의의 체결!»이다. 당의 주요 목표는 - 러시아의 번영이다. 당의 프로그램에 쓰여진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러시아를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강력한 국가로 회복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 그리고 2014년 3월 러시아연방은 역사적 분수령을 건넜다 - 크림공화국과 영웅도시 세바스토폴이 러시아로 재통합된 것이다.»

«또한 러시아인들의 생활수준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그것은 보다 개방적인 정치체제와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가 정착되었다는 것이고, 경제적 성장의 관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에는 여전히 천연자원 및 기타 국가자원의 활용하는데 있어 불평등한 분배가 남아있고, 거대한 사회 계층화와 높은 수준의 부패가 남아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20여년 전에 소련이 붕괴되고

난 후 어떤 정부가 수립되었는지, 가까운 장래와 먼 미래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인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위해 새로운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전형을 만들어낼 것



지, 글로벌화된 지구촌에서 러시아연방은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러시아는 보다 나은 운명을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 러시아는 그것을 위해 온갖 고생을 해왔다. 그리고 주요하게는 러시아에는 강력하고 정력적인 발전과 세계제1의 국가가 되기 위한 의미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경제적인 가능성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수준에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정치구조에서, 그리고 국가권력의 모든 부문과 수준에서 전문성과 애국심을 갖추는 부문에서 그렇다.»

«머지않은 미래에 러시아연방이 단지 가장 발전되고, 강력하고, 사회적으로 주도권을 가진 나라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위해 새로운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전형을 만들어낼 것

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에는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고 막아낼 방법이 있는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세계사회에 이러한 부분을 인식시켜가고 있다.»

대담의 말미에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는 크림에 관해서 «러시아 애국자»당이 지역의 급성 및 만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안하는 크림 개발의 종합적인 계획 프로그램을 공식화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이 계획은 많은 부분이 정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고 현실화될 것인데, 바로 여기에 당의 지역 지부도 참가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표트르 볼코프